



무등산 무돌길
보성 태백산맥 문학기행길
무안 갯벌 낙지길
남원 흥부길
익산 금강생태탐방길

“남도 풍광따라 이야기 숨쉬는 길 함께 걸어요”

문광부, 호남 5곳 ‘생태탐방로’ 선정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모사업인 ‘이야기 있는 문화생태 탐방로’ 조성 사업에 무안 갯벌 낙지길과 무등산 무돌길, 남원 흥부길 등 호남 5곳을 비롯해 전국 10개소가 선정됐다.

이야기가 있는 문화생태 탐방로는 아름다운 자연과 문화·역사 자원을 특성 있는 이야기로 엮어 국내외 탐방객들이 느끼고 배우고 체험할 수 있도록 조성하는 사업이

다. 문광부는 역사문화길, 문학 이야기길, 풍경이 있는 가로길, 테마여행길 등 4가지 주제로 나눠 지자체와 민간 전문가들로부터 52개소를 추천받아 1차 서류심사와 2차 현장심사를 거쳐 최종 10개소를 선정했다.

호남에선 문학 이야기 분야에 보성 태백산맥 문학기행길과 남원 흥부길 등 2곳이,

테마여행길에선 무등산 무돌길, 무안 갯벌 낙지길, 익산 금강생태탐방길(익산 둘레

길) 등 3곳이 선정됐다.

보성 태백산맥 문학기행길(8km)은 조정래 작가의 소설 태백산맥 실제 무대인 벌교 지역의 다양한 현장을 걷는 길이다. 소설 속에 등장하는 소학교, 중도방죽, 남도여관 등을 연상하며 걸을 수 있다.

남원 흥부길(10km)은 흥부가 놀부에게 쫓겨와서 복을 받았다는 자래마을을 중심으로 엎은 곳으로 흥부가 배가 고파 쓰러졌다는

‘허것재’와 부러진 제비다리를 고쳐주고 부자가 됐다는 ‘고둔터’ 등이 포함돼 있다.

테마여행길 분야인 무안 갯벌 낙지길(54km)은 단도만 갯벌의 풍광을 즐기며 걷는 해안길로 갯길과 함께 방조제길, 황톳길, 제방길, 소나무길, 갯바위길 등 해안의 절경을 만끽할 수 있다.

광주시와 화순군, 담양군에 걸쳐있는 무돌길(52km)은 무등산 기슭에 형성된 울망풀망한 마을과 소쇄원, 식영정, 환벽당 등 정자 문화유산을 둘러보며 걷는 탐방로다.

익산 둘레길(39km)은 금강과 나란히 뻗은 능선 숲길로 성당과 교회, 사찰 등 3대

종교의 명소를 비교하며 즐길 수 있고 자연 거리에 적합한 길로 추천받았다.

전남도는 신규시설 설치 등 물리적 조성을 최소화하는 조건으로 탐방로 안내판 설치, 스토리텔링, 흥보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는 한편 탐방지역의 특화된 주제발굴 등을 통해 문화적·친환경적 탐방로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이기환 전남도 관광정책과장은 “걷기 좋은 남도 고유의 독특한 탐방로에 이야기를 입혀 남도의 정취를 느끼고 배우고 체험할 수 있도록 상품을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지역민과 소통하는 ‘여수상의’

사무국장 공모·자문위 설치 등 투명 운영

9개월간 회장 공석으로 차질을 빚어 온 여수 상공회의소가 신임 회장단 출범과 함께 상의 위상강화를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실장室 신임 회장(재원산업 대표이사)은 ‘투명한 상의’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상의’를 표방하며 자신의 인사권을 포기하고 사무국장을 공모하도록 해 주목을 받고 있다.

18일 여수상공회의에 따르면 신임 회장은 자신이 지명할 수 있는 사무국장을 공개채용하도록 지시해 상의 홈페이지를 통해 20일까지 응모를 받고 있다.

상의 사무국장은 정관상 회장이 지명할 수 있도록 그동안 사무국에서 승진한 자나 여수산단 퇴직자 등

외부인사가 지명돼 있으나 신임 회장의 투명한 상의 운영방침에 따라 전격 실시됐다.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도 예산을 대폭 증액하기로 했다.

여수상의는 그동안 연간 예산 20여 억원 중 소외계층 지원 예산 반영이 미비했으나 올해부터 예산을 대폭 증액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상의’로 거듭나기로 했다. 이같은 결정은 다문화복지와 재원장학회 등을 통해 사회공헌 사업을 활발히 펼치고 있는 신임 회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여수상의는 지역 상공인 전체가 아닌 ‘여수산단’을 대표하는 상의’라는 입장이다.

/동부취재본부=박성태기자 mihang@

“잘 부탁드립니다”

NH농협생명 전남지역총국(총국장 김홍주)과 NH농협손해보험 전남지역총국(총국장 김영조)은 지난 16일 출근시간을 이용해 광주역 광장에서 기부 캠페인을 벌였다. 이날 캠페인은 민영보험사로의 새로운 출발을 고객에게 직접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농협 전남지역본부 제공)



“바지락 나와라 뚝딱~”

최근 여수시 돌산읍 죽포리 돌산갓김치정보화마을(두문마을)을 찾은 관광객들이 마을앞 갯벌에서 바지락 등을 잡고 있다. 돌산갓김치 정보화마을은 매월 계절에 맞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여수시 제공)

전국 첫 농업 시책 문답서 나와

강진군 ‘한눈에...’ 빌간

강진군이 농업인들이 농업시책을 쉽게 이해하고 알 수 있도록 대화형식의 안내서인 ‘한눈에 알아보는 강진농업’을 발간했다.

130쪽 분량의 안내서는 농업분야 각종 사업을 농업인들이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사업의 개요, 신청절차 등을 수록했으며, 농업인들이 궁금해 하는 농정시책·친환경농업·농기계·원예·축산·산림·유통 및 시범사업 등 농업시책 71개 사업을 194개

문답형식으로 수록했다. 특히 사업별로 업무담당 공무원의 실명과 연락처가 기재돼 있어 궁금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해 자세한 안내도 받을 수 있다. 안내서는 이달말까지 농업인과 농업생산자 단체에 배부된다.

박준조 강진군수 권한대행은 “농업 현장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농업인들이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발견했다”며 “작은 책자가 지역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중부취재본부=남철희기자 choul@

전남 친환경 인증심사 강화

전남농산물품관원 워크숍

국립 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지원장 장맹수)이 올해 친환경 인증심사를 대폭 강화한다.

전남지원은 지난 15~16일 보성군 유포면 다비치촌도에서 민간 인증기관과 품관원 심사원 등 130명을 대상으로 친환경 인증심사사업부 워크숍을 실시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안전한 친환경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공급하기 위해 전문 인증기관과 품질관원 심사원

의 결의문 낭독에 이어 인증 심사원에게 강화된 심사기준과 인증업무 처리요령을 집중적으로 교육했다.

또 현장 인증심사와 사후관리 시 친환경 필지를 쉽게 찾아가는 ‘친환경 인증필지 현장조사용 프로그램’에 대한 사용방법 교육도 실시해 인증농가들이 재배포장에서 농약 등을 사용하는 것을 쉽게 적발할 수 있도록 했다.

품관원은 친환경 농업의 올바른 실천을 위해 인증농가 교육과 함께 영농 관련 기록장을 각 시·군에서 제작해 배부중이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호남총판 광주 1호점

안동 간고등어

오픈기념 고등어먹고 제주도로!

10박스 이상 구매시 제주도 왕복 항공 여행상품권 증정 2인(2박3일) 효도선물로 좋습니다!

안동간고등어 선/물/박/스 ₩12,000~

제주도 2인 왕복항공여행권을 소지한고객만의 혜택

제주도 왕복항공요트무료여행권

영업 사원 및 딜러 대 모집

문의전화 1577-4929
H.P 010-5760-9179
www.honamgodunga.com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프리모 남녀가발

21년 가발 명가

타사제품 A/S 및 관리 환영

21년 가발 명가

파기식 신제품

50만원~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NAVER 주소(D) 대산프리모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리인기든상가 2층
대표전화: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재 011-607-5330

지도: B1MTR, 나주방향, 50m, 구대동고, SK주유소, 대산고, 대산고발